

말씀을 행하는 자의 복

본문: 야고보서 1:22-25

1:22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1:23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1:24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 버리거니와
1:25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 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1:22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기네스체)라는 말은 “너희는임을 확신하라”는 뜻이 있다. 여기서 “듣는자”(아크로
아 타이)란 말은 정기적으로 강의를 들었으나 참된 제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가르키
는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음으로 계속 들을 수 있으나 단지 듣는
데 그치고 말씀을 행함으로 변화가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축
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을 축복하셨다(눅 11:28).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발에서만 성장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로마서 2:13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
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진정으로 말씀을 듣는 자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만약에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행
하지 않으면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마음을 듣고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살
지 않는다면 위선자가 된 것이다.

스코틀랜드 설교자 로버트 존스톤을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께 바치지도 않은채 겉으로 시늉만 내는 가식적인 고
백들이 모두 하나님을 우롱 하는 행위이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적
으로 그와 같은 삶이 없다면 결국 자신을 속이는 결과가 되고 하나님까지 우롱 한다는 것이
다. 무서운 말씀 아닌가?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고 하였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다고
하였다(마태복음 7:24-27참조).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소감을 쓰는 훈련을 받으면 큰 도움이 된다. 소감
이란 듣거나 읽은 말씀을 내 말로 요약해 보고 깊이 이해 한 후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전한 이 말씀을 들은 분들께 간곡히 부탁 드린 것은 소감을 써서
댓글에 올려 달라는 것이다. 그리할 때 우리의 신앙이 놀라게 자라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소감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들을 때 보다 더 많은 은혜를 얻을 수 있다.

1:23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1:24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 버리거니와

거울을 보고나서 자기 얼굴을 기억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곧 잊어 버림 과 같이 말씀의 내용
을 금방 잊어 버린다. 여기서 거울은 온전한 율법을 비유하고 있다. 그 온전한 율법, 거울을
잠깐 보고 떠나는 것처럼 떠나면 안된다. 계속 그 율법을 응시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할
때 말씀을 잊어 버리지 않고 그 율법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의 열매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감명을 깊이 받은 말씀도 그 말씀 대로 행하지 않으면 곧 잊어 버린다. 내가 목화를
할 때 가끔 외부 강사들을 초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가 있다.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
은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들었다고 말한다. 그
런데 사실은 내가 그와 똑 같은 말씀을 수없이 가르쳤는데도 그 말씀을 다 잊어 버리고 처음
듣는 말씀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씀을 실천한다고 하는가?

1:25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 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단지 도덕적인 요구로 제한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의 구원 계시로서의 말씀 의미한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진리의 말씀, 즉 신자
를 낳고 성숙하게 하는 도구인 복음이다. 앞에서 21절에 마음에 심어지 말씀과 같은 것이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은 도덕적인 윤리와 더불어 그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 말씀
이다. 말씀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율법대로 행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말
이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감정에 끌려 살게 될 때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된다. 그러나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이 내주 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
다. 다만 우리의 능력으로 도덕적인 요구로 제한된 율법만을 지키고자 하면 그 율법은 우리를
억매이게 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참된 복음, 도덕적인 윤리와
그 윤리를 행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함께 포함 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도덕적인 윤
리뿐만 제한 된 율법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을 억매이게 한다.

율법에 노예가 된 사람은 섬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
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 하셨다(마 11:28).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란 자기의 노력과 자원으로 도덕적으로 제한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들에
게는 섬이 없다. 자유가 없다. 진정한 섬, 자유는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섬과 자유를 주기 때문이다.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방종할 때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멍에를 땀 때 자유가 있는 것이다. 왜냐
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 하서
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신다. 신들린 자처럼 피아노 건반을 자유 자재로 누르면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는 철저하게 피아노치는 법칙(율법)을 배우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의 진

정한 자유는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을 성령의 은혜로 잘 지키는 자이다.

요한복음 8:31-32

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들여다 보고 있는 자자”란 자세히 살펴 보고 그 곁에 거한 사람을 의미한다(one who looks intently and abides by it). 거울을 보고 지나간 것처럼 살지 않고 참된 거울인 율법 (말씀)을 자세히 살펴 보고 그 곁에 거한 사람은 율법을 잊어 버릴 수 없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고 하였는데 반대로 말씀이 잉태하면 생명을 낳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항상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들여다 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암송이 중요하다. 말씀을 암송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주야로 묵상 할려면 암송해야한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면 그 말씀이 생명의 역사를 이룬 것이다.

성경은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도록 힘쓰라는 말을 수 없이 강조한다.

잠언 4:20-21

20. 내 아들이야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21.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신명기 6: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시편 1:1-2

1 복 있는 사람은.....

2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급하게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말씀의 뜻을 자세히 살피고 그 말씀 가운데 항상 머물며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 그 행함은 바로 엄청난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They will be blessed in what they do. 여기서 복이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것은 번영을의미한다. 영어로는 prosper라고 했다. 가정 일이나 직장 일이나 공부하는 일등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다는 것이다.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정에 문제 많지요.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드들은 가정이 행복하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번영 신학자들이 말한 그런 의미와 다르다. 번영 신학에서는 행위의 대가로 복이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의 복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복이다.

비록 우리의 신앙이 어리다고 할지라도 항상 말씀을 자세히 듣고 읽어서 그 말씀을 마음 속에 간직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자라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큰 복이다. 오랜 신앙 생활을 하지만 말씀을 순종한 참 복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 시간 나는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